

##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증거

-아리 벤(Ari Ben)

이스라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인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공항에 서서 지나가는 레바논 사람에게 둘이 예슈아 안에서 형제라고 설명을 하면, 레바논 사람은 놀라고 경이로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중동 이슬람권 복음화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 다녀온 저희 팀원 중 한 명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컨퍼런스에는 예수님을 믿는 아랍계 약 400명과 서구 선교사들 200명, 이스라엘 메시아닉 유대인 1명이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 대표는 저희 팀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간의 분쟁은 온 세상이 압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진실한 우정과 포용으로, 게다가 시간과 돈을 들여 연합한 모습을 볼 때, 예슈아의 권능과 화해시키는 사랑이 비범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한 오명 메서

-아셰르 인트레이터

이번 주, 랄프 메서(Ralph Messer)라는 소위 메시아닉 랍비가 에디 롱(Eddie Long)이라는 흑인 주교를 토라 두루마리로 둘러싸는 모습을 담은 당혹스러운 비디오가 돌았습니다. 이 비디오는 토라 두루마리의 신성함을 훼손한 탓에 유대인 사회에 상당한 반발을 일으켰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는 불명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비디오는 메시아닉 공동체 내에서 맹렬히 비난 받았습니다.

저희는 악하게 의도된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인기 있는 히브리어 신문 YNet의 영문 인터넷판에 나왔습니다. 이 기사 옆에는 저와 제 아들이 토라 두루마리를 안고 있는, 저희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YNet이 메시가 메시아닉 유대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기사를 싣고, (비록 잘못 인용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저를 비롯한 몇몇 이스라엘 믿는 이들과의 인터뷰 기사를 다시 게재한 것입니다. 그 기사는 저희 신앙에 대해 꽤나 긍정적이었습니다.

## 이란과 에스더

이번 주 유럽에서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높이는 움직임이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에 있는 이란 자산을 동결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신문들은 한 이란 여배우와의 인터뷰 기사를 냈는데, 그녀는 이란 현 정권이 반이스라엘 일지라도 많은 이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핵무기 확보 경쟁은 금년 에스더 금식기도의 무시무시한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스더 서는 페르시아(이란)의 유대 민족을 겨냥한 잠재적 대학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기적적으로 세계적인 대부흥으로 바뀝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시(豫示)하는 것입니다. 저희와 여러 메시아닉 회중과 기도 집들과 함께 3월 7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획된 12시간 금식 중 보기도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의 기도 모임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의 페이스북

예슈아의 제자훈련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바를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시 1:2-3 –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수 1:8 – 주야로 그것(이 율법책)을 묵상하여 ...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분의 진리이며 그분이 의사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책, 즉 그분의 “페이스북”입니다.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이고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라**

-아리엘 블루멘탈

저희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은 매일의 “PPP” (찬양-Praise, 기도-Prayer, 예언-Prophecy) 시간을 크게 강조하는데, 거기에는 일요일의 사역자 기도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열린 모임, 금요일의 공동체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레 6:12-13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기도/예배 파수 모임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단: 희생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립하는 목적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새 언약 하에서는 동물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제단과 같이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종류의 찬양과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여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새롭게 타오르게 합니다.

떨감: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제단에 “나무를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떨감을 패서 쌓아두고 개미가 꿀지 못하게 지키며, 성전으로 가져옵니까? 우리는 찬양과 춤과 선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등의 재미있는 부분을 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음향 시스템을 관리하고, 기타 줄을 바꾸고, 예배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보수하는 등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기도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 즉 제단에서 질 좋은 불이 타오르도록 나무를 계속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침: “아침에”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연이어 두 번 나옵니다. 성경은 아침에 첫 번째로 할 일로 예배와 중보의 불을 때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 24시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중 분주함이 끼어들기 전에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번제: 다른 모든 예배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쉼없이, 밤새도록이라도, 계속 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타미드-tamid, 즉 “지속적”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완전히 하나님께만 태워지는 것입니다. 재조차 진 밖의 거룩한 장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제사장의 왕국(Kingdom of Priests)으로 나오되, 그 예배를 통해 뭔가 얻을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야 합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에는 우리를 위한 맛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당신의 자녀들과의 교제와 좋은 것을 주기를 좋아하십니다(눅 11:13). 그러나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과 그분을 경배하려는 우리의 동기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옛본 천상의 예배에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